



야생화(野生花) 존재의 이유

김태정/한국야생화연구소 소장

우리의 산과 들에는 우거진 숲과 풀이, 무성하게 우거지는 계절이 꽃시절보다 낫다는 옛말이 있다. 더위는 자연(自然)을 살찌우고 자연을 더욱 더 강하게 만든다.

온 산과 들은 살이 찐다. 나무와 풀과 그리고 꽃들이 피면서 그렇게 만들고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서 심산유곡을 찾아 걸음을 재촉할 때면 자연은 더욱 비대해진다.

이때 나는 수십 통의 필름과 카메라를 준비하고 꽃들과의 만남으로 산으로 들로 헤맨다.

질푸른 숲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세속에 영합하지 않은 단아하지만 소박한 야생상(野生狀)의 식물들이다. 무더위가 지나가고 나뭇잎이 곱게 단풍이 드는 10월이 되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산이나 계곡 혹은 들로 나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룬다.

그들은 소비하기 위해 자연속에 흡수되고 야생화에 대한 편집광적인 나는 생산(生産)을 위해 가을을 맞는다.

휴식은 보다 나은 생산을 위한 것이라지만 그들은 단순히 소비하고 허비한다. 재력을, 능력을, 젊음을, 마지막 남은 인생의 의미까지도. 물론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도 안된다.

하지만 그들의 행렬은 과잉풍조의 놀이행각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역설일지 몰라도 그렇게 맹목적인 삶으로 남의 의지에 맡겨 살아가는 이들을 기생초(寄生草)라고 하고 싶다.

잡초같은 그 풀섭에 노오란, 아주 노오랗게 앉아 있는 민들레 한 포기들 보다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믿고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순박하고 순수해서 무엇인가에 빠지면 그 광기에 의해 혼을 놓고

추구하는 이들, 이 겨레를 이끌고 가는 미래의 별들에 대비시킨다.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우리로 존재하기 위해 겨레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높고 푸른 가을의 하늘아래 무수히 많다.

민들레 같은 사람들은 그렇다. 산과 들 어디서나 잘 지라는 강인한 의지의 소유자이다. 좋은 조건이나 특정한처럼 보장된 환경이 아니더라도 또 가르쳐주지 않아도 도와주지 않아도 가끔의 폭풍우 속에서도 영롱한 꽃잎을 피우는 사람이다. 여러 존재 중에서 하나의 꽃을 피우는 개성이 뚜렷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꽃, 그 목표가 조화를 이룬다.

또한 하는 행동이 올바르고 모범적이어서 존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 멋진 인생을 설계하는 민들레 닮은 이들은 거역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순리에 반(反)해서 그는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다.

낮에는 노동의 의미를 만끽하고 밤에는 휴식과 피안의 의미를 반추할 줄 안다. 그래서 교만하지도 않다. 생활의 터전이 바뀌어도 강하게 살아간다.

봄에 피어나는 민들레꽃은 국화를 닮았지만 국화만큼 고독하지 않다. 새순은 인간에게 유익한 식품으로 나물거리나 국거리가 되기도 한다. 꽃과 뿌리도 인간의 병(病)을 치유하는 약으로 쓴다.

그래서 돋보이지만 순박한 이들은 항상 남에게 선(善)을 베푼다. 자기를 희생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누구도 홀로 설 수 없는 이 땅에 뿌리를 내려 사는 사람들이여, 민들레 꽃에서 배우자.

그에게로 가 그의 선산 사람들이 되자. 단아하지만 소박한 보통의 사람이 되자.